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3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9. 성도여 다 함께 .....
♠ 공동기도 .....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모처럼 찾아온 겨울다운 추위를 맛보았습니다. 입김을 호호 불어 아이의 시린 손을 녹여주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봉사에 게으르고 섬김에 서투른 손입니다. 주님의 입김으로 녹여주시어 어느 곳을 어루만지든 사랑과 평화의 꽃을 피워내는 손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따뜻한 남녘을 향해 열을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들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높이 날아오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참 사람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밀쳐내지 않는 품이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겉보다는 내면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불의 앞에서는 용감하고, 사랑에는 섬세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련의 태풍조차 주님께 나아가는 길로 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렘17:7-8 .....
♠ 교 독 문 .....	52. 요일4장 .....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대표기도 .....	I. 문영혜 집사 II. 윤석철 장로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1. 86.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
성경봉독 .....	I. 창19:17,24-26 .....
	II. 고전9:19-23 .....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
	II. 참 멋진 사람 .....
	최인환 선생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523. 나 형제를 늘 위해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261. 어둔 밤 마음에 잠겨(1,3)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이리저리 가르는 이들이 되지 말고, 사람들 사이의 막힌 담을 사랑으로 허는 이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함 께 :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작은 차이 때문에 더 큰 일치의 가능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신 섬김의 길을 마음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임원찬목회	로마서 강해(66)
주관: 제3남선교회	기도 : 김근중 권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최성애 집사 김재흥 목사	인도자 방문성 권사

<b>1월</b>	영접위원	조병무	이인웅	김 극	배상순	곽권희	정진경
	헌금위원	윤정덕	김준호	한상익	문복순	최숙화	오성희

## 눈 한송이의 무게

아주 작은 박새가 비둘기에게 물었다.

“눈송이의 무게를 알고 있니?”

비둘기가 대답했다.

“눈송이의 무게라고? 눈송이에 무슨 무게가 있겠어. 허공처럼 전혀 무게가 없겠지.”

그렇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며 박새가 말했다.

“언젠가 나는 눈 내리는 전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었어. 할 일도 없고 해서 나는 막 내리기 시작하는 눈송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지. 가지 위에 쌓이는 눈송이 숫자를 말이야. 눈송이는 정확히 374만 1,952개가 내렸어. 그런데 말이야...”

박새의 잔잔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다음 눈송이 하나가, 374만 1,953번째 눈송이 하나가 가지 위에 내려앉자, 가지가 그만 툭 부러지고 말았지. 무게가 전혀 없는 허공과 같은 눈송이 하나가 앉았을 때!”

박새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던 비둘기가 나지막이 한마디를 했다.

“그래 맞아.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부족한 건지도 몰라, 세상에 평화가 내리는 데는.”

정말이지 평화의 마을에 내리는 눈송이처럼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이야기다. 답답하고 어지러웠던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운 고향 뒷산 참나무 숲에 내리듯, 추수 끝난 들판 가득 눈발 날리듯 가만가만 눈송이가 내려앉는 마음이 든다.

눈송이 하나가 무슨 무게가 있겠는가만, 어느 순간, 눈송이 하나가 더 얹히는 순간 가지가 부러지는 것이 아닐까. 그 한 송이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가만 있던 가지였을 텐데... 박새의 말을 새기는 비둘기의 마지막 고백이 인상적이다. “세상에 평화가 내리는 데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부족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고백 말이다. 세상의 평화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말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할지 몰라도, 허공과 같은 눈송이 하나에 가  
지가 부러지듯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비로소 세상에 평화가 임할  
수 있음을...

##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고 이렇  
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의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주린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씀을 글로 적어 놓으리이까?”

그리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그 말씀을 잘 새겨 뒤야 할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 볼까요?”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태오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언제 떠날 것인가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그 말씀이 실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수업 계획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나고 물었  
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작자미상)

## 나리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고요해지는 사랑이 깊은 사랑이다  
나릿재 밑에 있는 나리소 못이 가장 깊고 고요하듯...  
여울을 건너올 때 강물을 현란하게 장식하던 햇살도  
나리소 앞에서는 그 반짝거림을 거두고 조용해지듯  
한 사람을 사랑하는 동안 마음이 가장 깊고  
착해지지 않으면 진짜 사랑 아니다  
물빛처럼 맑고 투명하고 선해지지 않으면  
-----

도종환 님의 “나리소”라는 제목의 시다.  
어떤 깊고 잔잔한 못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의 뜻을 묻고 있다.  
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의 선함이 같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존재에게서 나오는 힘이야말로  
세상을 진실로 감동시키고  
또한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그는 믿는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요란해진다.  
그곳에서 자신의 선함을 버린다.  
자신의 반짝거림을 내세운다.  
사랑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목격한다.

###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종훈 안경숙 한상익 정영선 이한림 김명희 이봉옥 박재실 이광용  
형인순 정복순 유수호 이영란 엄혜영

###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윤성종 김윤정 최주환 문복순 이희균 김영한 이은자  
이호원 임 영 정경례 조동길 배부례

### 감사헌금:

박정오 장민숙 김종훈 안경숙 김흥기 박시내 정복순 한선희 김인걸  
문영혜 김희은 김재환

생일감사헌금: 박시내      구도헌금: 김철수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섬	섬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1월 정기임원회가 열립니다.
2. **임원친목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지하 친교실에서 임원친목회로 모입니다. 임원들이 사귀면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새로되신 임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원로모임** : 아름다운 원로 1월 모임이 29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든든히 입으시고 기쁘게 오시기 바랍니다.
4. **수련회** :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월 29일(목)부터 31일(토)까지 예산 안골교회에서 열립니다.
5. **예배참석** :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교회에 도착하도록 해보십시오. 특히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각자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씨앗을 심기 위해 애쓰십시오. 구체적으로 한가지씩 정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헌화 - 노정숙 권사(중앙병원 원장 고 김한수 선생 1주기 추모)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치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교사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